

## 실습생 내러티브

### 5/6 수요일

- 첫 날이라 그런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먼저 교실에 가서 학생들과 인사 했는데, 생각보다 나를 잘 반겨주어서 너무나도 고마웠다. 물론 학생들이 숫기가 없어보여서 친해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조례 이후에는 미리 신청한 수업이나 맡기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종일 교무실 내 자리에 앉아서 일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시설들을 구경했다. 특성화고라 그런지 특이한 실습실들이 정말 많았고, 학교 건물도 정말 많았다. (교무실도 매우 많다..) 정신없지만 하루가 잘 끝났다.

-

### 5/7 목요일

- 오늘은 처음 수업을 참관했다. 1-2교시에 방송콘텐츠 수업을 참관했다. 생각보다 학교 수업은 교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 지기 보단 수행평거나 진도를 빼기 바빠서, 실제로 내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수업을 하기에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오늘 들어간 수업도 학생들이 내내 수행평가 준비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기수업에서는 진도라는 개념이 따로 없어 학생들이 즉흥극을 하면서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었다. 확실히 연기수업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랑 친해지기가 수월했다.

-

### 5/8 금요일

- 오늘은 연구부장님과 연수를 했다. 부장선생님의 연수를 통해 특성화고의 구조와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뭔가 특성화고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감이 느껴졌었다. 그런데 연수를 듣다보니 내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도, 진학도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학교인 것 같다. 부장 선생님께서 이 외에도 정말 내 삶에 피가되고 살이되는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연수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말 뜻깊었다.

-

### 5/11 월요일

- 오늘은 교감선생님과 연수를 했다. 교감선생님께서서는 공문서 작성하는 법, 연가 내는 법, 외출 끊는 법 등 실무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원래는 연수가 한시간으로 잡혀 있었지만 무려 한시간 반동안 면담을 했다. 그런데 하나도 안질리고 정말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재미있는 말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정말 많이 가감없이 말씀해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다. 특히 공문서 쓰는 법이 정말 까다롭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느껴졌다. 역시 교사는 정말정말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

### 5/12 화요일

- 오늘은 연기수업 이후에 내가 직접 피드백을 전달했다. 항상 피드백을 받기만 했던 내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잘 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연기를 보다보니 이런 부분들을 얘기 해주면 더 잘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라는게 정말 잘 보였다. 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학생들의 연기를 봤을때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위해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내가 교사 입장이 되고, 학생들의 수업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보는 시선부터 달라졌던 것 같다. 학생들이 이 피드백을 통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5/14 목요일

- 스승의 날이라고 롤링페이퍼와 쪽지를 받았다. 이 학교에 온지 단 1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도 나름 선생님이라고 챙겨주는 학생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했다.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 보이기만 하고 언제 철들까.. 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어른스러운 모습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라 그런지 가정의 달을 맞아 정말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재능기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 5/18 월요일

- 오늘은 드디어 혼자 첫 수업을 했다.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하고 여러번 시뮬레이션도 돌렸지만 전혀 내가 생각한대로 수업이 흘러가지 않았다. 그래도 학생들이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훈련을 엄청엄청 힘들어했다.. 사실 이걸 힘든 훈련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학생들의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수업을 짜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도 뒤에 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즉흥극 수업은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연기를 해주어서 정말 재미있었다. 연기수업은 다른 수업과 다르게 학생들이 더 많이 활동해야하고 움직여야 하는 수업인데,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의 적극성과 참여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

#### 5/19 화요일

-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이었다. 나는 분명 학생들이 쉽게 몸을 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갔는데,, 학생들은 많이 힘들었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래서 시간이 비었는데, 이 남는 시간에 뭘해야할지 짧은 시간만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름 예비로 준비한 수업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다음 수업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분명 준비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면 어찌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활동이 부족했다 ^^ 그래도 다음 활동인 즉흥극 만들기 수업도 학생들이 너무 잘해주고 이해력도 뛰어나서, 재미있게 수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 연구수업에도 좋은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 5/20일 수요일

- 오늘은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도 하고, 비도 와서 뭔가 조용하고 적적한 날이었다. 2교시에는 회계수업을 참관 했는데, 실제로 홈택스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회계사랑 pro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 정원이 정말 적어서 소수정예로 수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역시 학생의 수가 적을 수록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앉아있는 곳이 생활인성부라 그런지 학교폭력, 개인 상담을 여기서 정말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고민과 가정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옆에서 보면서 꽤나 충격적인 부분도 많았고 슬픈 이야기도 많

았다. 이런 부분들을 담임 선생님께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옳지 않은 부분은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셨다. 교사는 이렇게 수업만 하는게 아니라 학생 한명한명의 삶을 들여다보고 옆에서 공감해주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5/22일 금요일

- 오늘은 체육대회를 했다. 며칠전부터 모든 학생들이 예선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이 날만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너무 더워서 처음에는 좀 지루했는데, 하다보니까 전략 줄다리기도 너무 재밌고 계주도 정말 재미있었다. 그 와중에도 방송반이나 체육부서 선생님들은 정말 바빠보였다. 이런 축제는 정말 선생님들의 기획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1-4반이 더 단합되었으면 좋겠다.

#### 5/26 화요일

- 오늘은 관광비즈니스과의 항공 수업을 참관했다. 항공이나 호텔 등 서비스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였다. 서비스직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전부터 정말 궁금했는데, 연기수업과 꽤 비슷한 점이 많았다. 태도나 인사, 서있는 자세 등 기본적인 것부터 지도하고 가르치셨다. '공수' 라고 해서 인사하기 전 자세를 잡고, 천천히 인사하는 법부터 배웠다. 이전에는 서비스직의 기본적인 인사나 태도 자체를 교육받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교육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5/28 목요일

- 오늘은 드디어 연구 수업을 했다!! 연구 수업을 위해 정말 며칠간 지도안도 짜고 수업도 기획하고 열심히 준비했었다. 같은 교무실 선생님들도 각자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해주셨다. 학생들도 평소보다 내가 조금 더 긴장한게 보였는지 더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수업을 어느정도 진행하다가 시계를 보니, 내가 약 45분정도 기획한 수업이 20분만에 끝나는 아주 대참사가 일어나버렸다.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다음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 수업 지도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수업을 순회 지도를 하면서 발표를 이어가거나 다행히 정 확히 제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
- 정말 떨릴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고, 연기하는 것 보다는 덜 떨렸다! 역시 사람은 무대에 많이 서 봐야 되는 것 같다. 끝나고 함교수님도, 교감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나는 평생 연기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었는데, 수업을 하다보니 교직 생활도 내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수업 덕분에 교직 생활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정말 큰 계기가 되었다.

#### 5/29 금요일

- 오늘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제 날이다! 1-4교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식도 정말 많았고, 칵테일, 향수, 포스트잇, 거울 등 정말 많은 상품들을 준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이 학교의 최대 장점인 재미가 또 한번 느껴지는 하루였다. 나는 이용선선생님의 부탁으로 10초컷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성공도 많이 해서 놀랐다.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도 정말 기발

하시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 2부 순서로는 축제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춤, 노래, 밴드 등 정말 많은 공연을 볼 수 있었다. 특히 3-4반 친구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장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렇게 색다른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었다니.. 정말 대견하고 볼수록 기특했다.

6/2 화요일

- 벌써 한달이 지나갔다. 한달동안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다.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 충고들 전부 되새기며 하루를 보냈다. 마지막 시간에는 친구들이 이별 파티도 해주었다. 이 예쁜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지... 교생실습은 내 삶에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